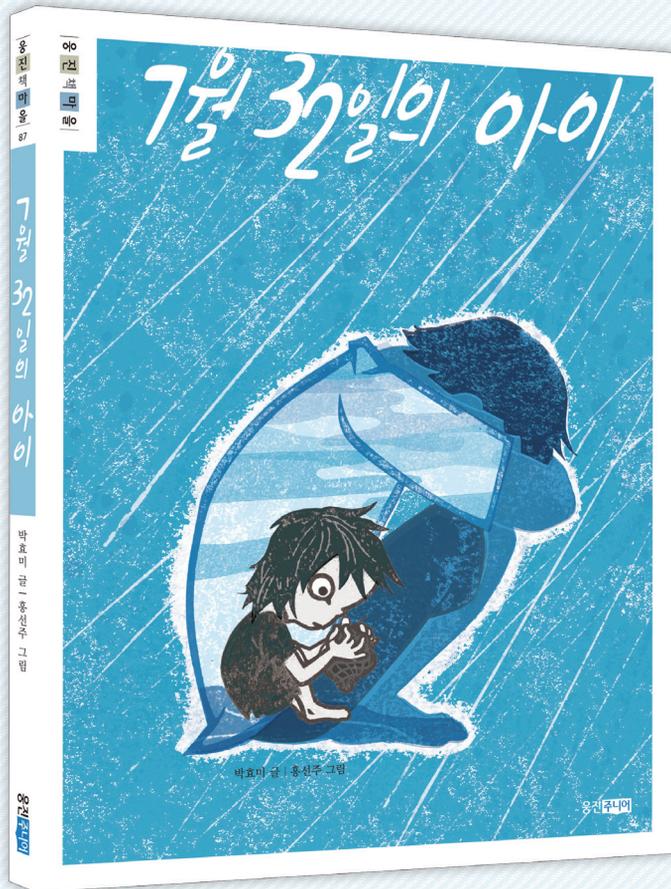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5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박효미 글 | 홍선주 그림 | 웅진주니어 | 107쪽

독서 준비	읽을 책을 정하고 책 미리 보기
독서	책을 즐기며 읽기
독서 후	생각 나누기, 독후활동지, 정리하기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7월 32일의 아이>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의 제목 '7월 32일의 아이'를 보고,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작은 조약돌을 마음에 품은 아이들에게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동급생 진호의 주먹질에 시달리는 준재에게

도깨비감투는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_<7월 32일의 아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땅꼬마 명주에게

선녀의 날개옷은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까? _<선녀의 날개옷>

① 이 책의 작가가 <7월 32일의 아이>, <선녀의 날개옷> 두 이야기를 읽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② '준재'와 '명주'가 각각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줄지 모르는 어떤 물건을 얻었나요?

지은이	쪽수	출판사
준재		
명주		

어휘력 쑥쑥 키우기(1)

이름:

💡 다음은 '7월 32일의 아이'와 '선녀의 날개옷'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 (가) · 마루로 나가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 건 제대로 주제넘은 짓이었다.
 · 밥 한 통과 바꾼 정보는 기껏 감투가 너무 삭아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사실이었다.
 · 첫째 날은 남은 밥 한쪽이 사라졌는데, 몽이가 채근하자 그다음 날은 아주 나타나지도 않았다.
 · 흰머리 성성한 아저씨 한 분이 대뜸 청진기를 갖고 명주에게 다가왔다.
- (나) · 몽이가 고약한 아버지를 두었고, 아이 자신도 남다르게 ㉠몽니 긋어 몽이로 불렸다.
 ·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이며, 벗어 던진 옷가지, 비닐봉지들을 ㉡게 눈 감추듯 치웠다.
 ·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고, 그 물을 닦는 건 명주 몫일 터였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의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주제넘다 : (), 삭다 : (), 채근하다 : (), 성성하다 : ()

- ① 머리털 따위가 희끗희끗하게 세다.
 ② 어떻게 행동하기를 따지어 독촉하다.
 ③ 말이나 행동이 건방져 분수에 지나친 데가 있다.
 ④ 물건이 오래되어 본바탕이 변하여 썩은 것처럼 되다.

2) (나)의 밑줄 친 표현 ㉠~㉢의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 : (), ㉡ : (), ㉢ : ()

- ㉣ 음식을 빨리 먹어 치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 심하다.
 ㉦ 한번 저지른 일을 다시 고치거나 중지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휘력 속속 키우기(2)

이름 :

💡 다음은 '7월 32일의 아이'와 '선녀의 날개옷'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 (가) ① 이따금 ()도 아닌데 대낮이 밤처럼 째깍해지는 때가 있다.
 ② 엄마를 거론하는 건, 술을 사오라는 것보다 더 나쁜 ()였다.
 ③ “엄마가 오면 붙잡고 늘어져야지, 이런 ()나 던져 주고 가 버리는데 가만히 있었어?”
 ④ 노란 스쿨버스가 마을 회관을 벗어나기도 전에 명주는 ()으로 내달렸다.
 ⑤ 입술이 새빨간 명주 엄마가 여전히 물건을 ()에 갖다 대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다.

- (나) · 그래도 소주 한 병을 내줘서 ㉠ 이라고 몽이는 생각했다.
 · 할아버지는 벌써 술이 취해 ㉡ 만나는 노래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1) 문맥과 낱말의 뜻을 고려할 때,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정조 : 어떤 일이 생길 기미.
- 건너뜀 : 건너편에 있는 작은 마을.
- 주전부리 : 맛이나 재미, 심심풀이로 먹는 음식.
- 일식 : 달이 태양의 일부나 전부를 가림. 또는 그런 현상.
- 바코드 : 상품의 포장이나 꼬리표에 표시된 검고 흰 줄무늬. 제조 회사, 제품의 가격, 종류 따위의 정보를 나타낸 것.

2)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 ㉠ : 아주 뜻밖에 일이 잘되어 운이 좋음.
- ㉡ : 편안하지 못하고 어지러운 세상.

7월 32일의 아이(1)

이름 :

💡 다음 '7월 32일의 아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몽이라 불렸던 그 아이는, 기준재라는 어엿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 하나 기준재는 학교에 서나 쓰였고, 엄마를 잠깐 만날 때나 불렸을 뿐, 대부분의 시간을 몽이로 보냈다. 몽이가 고약한 아버지를 두었고, 아이 자신도 남다르게 몽니 굶어 몽이로 불렸다. / 몽이 부자는 유별난 성깔만큼이나 창신동에서 오래 살았다. 뜨내기들 정거장인 이 동네에서 드문 일이었다. 아무리 짧은 뜨내기살이라도 창신동 마을버스를 타 본 사람이라면 몽이 부자를 금세 기억했다. 느티나무 길목에서 허구한 날 물건들이 깨졌고, 던지고 피하는 주인공은 몽이 부자였다.

(나) 어느 날, 고약한 아버지와 함께 살던 몽이에게 ㉠ 아주 고약한 물건 하나가 생겼다. 몽이가 ㉡ 그 특별한 물건을 발견한 날도, 창신동 머리 꼭대기로 구름들이 몰려들었다. 잘못된 달력 때문에 골머리 아픈 날이었다. 날마다 한 장씩 뜯어내는 달력에 32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러니까 7월 32일이라는 말이었다. 몽이 아버지는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계란 프라이 올렸던 빈 접시를 느티나무 쪽으로 던졌다. ㉢ 아버지의 몽니는 딱 들어맞았다. 아침부터 구름이 꿈꿨던 몽치더니 한낮이 되자 서늘 하늘을 뒤덮여 버렸다. 몽이 아버지가 일하다 말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날씨였다.

1) (가)에 나타난 '몽이'의 이름과 '몽이 부자'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몽이 : 라는 어엿한 이름은 에서와 에게 쓰였을 뿐, 몽이가 고약한 아버지처럼 남다르게 몽니 굶어 로 불렸음.

·몽이 부자 : 뜨내기들 정거장인 에서 드물게 몽이 부자는 이곳에 오래 살았음. 짧게 산 사람이라도 가 고약한 몽이 를 금세 기억했음.

2) (나)에서 밑줄 친 ㉠, ㉡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을 쓰세요.

⇒

3) (나)에서 밑줄 친 ㉢의 의미를 풀어 쓰세요.

⇒

7월 32일의 아이(2)

이름 :

💡 다음 '7월 32일의 아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사라지고 싶다고 했잖아.” 꼬마가 말했다. 몽이가 대답할 새도 없이 꼬마가 검부러기를 몽이 머리에 다시 씌웠고, 바로 손이 사라졌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은 틀림없이 있었다. 꼬마가 몽이 머리에서 그 검부러기 같은 모자를 벗기자 다시 손이 보였다.

“혹시, 도깨비감투야?” 도깨비감투는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신기한 물건이다. 녀석이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느티나무 속에서 500년을 살았다고 했다. 감투가 500년이나 되니 낡고 해져 버려 이 꼴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나) 만약 머리와 몸통만 남는다면, 그런 아이가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아마 서울 시내가 발칵 뒤집힐 것이다. 깡다구 진호도, 술 취한 아버지도 단박에 기절할지 모른다.

“야, 허리 아래로 안 보이게 해 줘.”

(다) 참으로 기묘한 건 그다음이었다. 진호를 실컷 패 주고 나니, 가슴에 뽕뽕한 바람이 든 것 같았다. 손끝도 근질거렸다. 뭐든 하고 싶었다. 부스럼이 될지언정 긁어 보는 것도, 주먹으로 때려 부셔 보는 것도 다 괜찮을 것 같았다. 그 느낌을 간신히 참고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온 게 오히려 놀라울 지경이었다.

1) (가)~(다)에 나타난 ‘몽이’의 감정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가) : 꼬마가 몽이 머리에
를 씌우
 자 손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랐음.



(나) : 와 만
 남는다면 진호와 아버지가
할지 모른다는 생각
 으로 기대감에 들뜸.



(다) : 이 뽕뽕했고
도 근질거렸으며 뭐
 든 하고 싶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았음.

2) (가)에서 ‘꼬마’가 도깨비감투를 ‘몽이’에게 씌우자 손만 사라진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7월 32일의 아이(3)

이름 :

💡 다음 '7월 32일의 아이'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버지가 날마다 두드려 패는 몽이예요.”

머리만 뚱뚱 뜬 몽이가 이제 말까지 했다. 주저앉아 있던 아버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진짜로 별받는 날이 오는구먼, 아이고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몽이 아버지는 침을 질질 흘렸다.

“꿈이면 좋겠지만, 꿈이 아니예요. 아버지가 날 패는 것도 꿈이 아니고요.”

몽이 목소리에 아버지가 간신히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는데, 몽이 머리가 춤추듯 아버지 쪽으로 다가왔다. 그제야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몽이 아버지는 기절하고 말았다.

(나) 그날 몽이는 창신동에서 사라졌다. 몽이 아버지도, 엄마도, 구멍가게 김 씨도 더는 몽이를 볼 수 없었다.

이따금 온 세상의 구름이 서울 하늘 아래 모이는 날이면 창신동 벼락 맞은 느티나무 아래 한 소년이 앉아 있곤 했다. 가까이 가면 보이지 않았지만, 번개가 세상을 밝히는 찰나, 그 짧은 순간에 틀림없이 소년의 그림자가 보였다. 소년의 그림자가 어찌나 슬프게 느껴지는지, 그 순간을 얼핏이라도 본 사람이면 꼭 느티나무를 다시 찾아와 소년의 흔적을 찾곤 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림자의 주인을 찾지 못했다.

1) (가)에서 ‘몽이’가 도깨비감투를 쓰고 ‘아버지’ 앞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2) (나)에서 ‘몽이’는 도깨비감투를 뒤집어쓰고 창신동에서 사라져서 누구도 더는 몽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1) ‘몽이’는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

(2) ‘몽이’의 결정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

⇨

선녀의 날개옷(1)

이름 :

💡 다음 '선녀의 날개옷'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뒤주에는 열쇠가 꽂힌 자물통이 걸려 있었다. 자물통을 돌려 뒤주를 열었다. 누르께한 낡은 천 뭉치가 햇빛에 밝게 빛났다. 명주는 천 뭉치를 두 손으로 품에 안았다. 팔짝거리며 가슴이 뛰었다. 명주 심장이 뛰는 건지, 천 뭉치가 뛰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명주는 천 뭉치를 조심스레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런저런 뻘한 천 뭉치 같았다. 하지만 뭉치를 넓게 펴면서 명주는 흔한 천과 다르다는 걸 금세 알았다. 파리마져 미끄러질 것처럼 보드라웠다. 펼쳐 놓으니 나는 갈매기 모양이었다. 양 날개가 이어지는 가운데만 감축이 까끌까끌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하늘을 나는 사람, 명주는 그림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어서 날 입으라고 짓궂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나) 명주는 더 빨리 날갯짓을 했다. 하늘 높이 올랐다. 고개를 살짝 숙이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학교가 있는 먼 소재지가 보였다.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조심스럽게 날갯짓을 했는데, 도무지 속도 조절이 안 됐다. 이대로라면 아무 데나 처박힐 상황이었다. 다시 위로 날아올 수밖에 없었다.

1) (가)에서 '명주'가 발견한 천 뭉치와 그에 대한 반응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뒤주 : 을 돌려 뒤주를 열자
 낡은 천 뭉치가 있었음.

방 : 천 뭉치는 보드라웠고, 펼쳐 놓으니 나는 모양이었고, 가운데만 까끌까끌했고, 그림이 있었음.



명주의 반응 : 천 뭉치를 두 손으로 에 안자 팔짝거리며 이 뛰었음.

명주의 반응 : 천 뭉치를 넓게 펴면서 천과 다르다는 걸 알았고, 그림이 어서 날 속삭이는 것 같았음.

2) (나)에서 '명주'가 날갯짓을 하며 조절이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을 파악하여 쓰세요.

⇨

선녀의 날개옷(2)

이름 :

💡 다음 ‘선녀의 날개옷’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날개옷을 벗자 명주는 덜컥 겁이 났다. 하루 종일 저지른 일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고, 그 물을 닦는 건 명주 몫일 터였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자 명주는 다시 날개옷을 입었다. 역시나 그저 날 줄 아는 옷이 아니었다. 입자마자 배가 뽕뽕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명주는 날개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다.

(나) “날개옷이 누나한테 붙었어.”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이대로 두면 날개옷은 완전히 살을 파고들어 명주와 한 몸이 될 것 같았다. 한 몸이 되면 명주는 맘껏 날며 멋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엄마나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고 멋대로 살면 될 것이다. 명주를 대놓고 무시하는 아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주 못 벗을지도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명주는 어쩌면 온전한 사람으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니 별안간 두려워졌다. 문득 이쯤에서 멈추고 싶었다.

명주는 진수를 보았다. 꼬맹이가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누나 좀 도와줄래? 여기 겨드랑이 있지, 날개옷 잡아당겨, 아주 세게. 딱 한 번에.”

1) (가)에 나타난 ‘명주’의 상태를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을 벗음

하루 종일 저지른 일이 생생하게 그려져서 덜컥 이 났고, 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음.



[]을 입음

곧바로 배가 뽕뽕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 생겼고, 은 눈 녹듯 사라졌음.

2) (나)에서 ‘명주’가 날개옷을 벗고 이쯤에서 멈추고 싶어 한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선녀의 날개옷(3)

이름 :

💡 다음 '선녀의 날개옷'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명주는 그제야 여태 꼭 쥐고 있는 깃털을 보았다. 아까 날개옷에서 뺀 깃털이었다. 이 깃털을 빼자 날개옷이 사라졌다. 명주는 꼼꼼하게 깃털을 살폈다. 반질반질한 깃털에 그려진 그림은 썩 멧졌다. 하늘을 나는 사람, 요 며칠 명주의 모습이였다. 꽤 괜찮은 경험이었다. 더는 꼬맹이라고 놀림도 받지 않았다. 유명해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불편해졌다. 어쩔거나 몸속에 담아 두었던 말을 밖으로 다 내보냈다. 후련하게 끝이 났다. 몸도 마음도 가뻐해졌다. 진수가 깃털을 갖겠다고 떼를 썼다.

(나) 명주는 그 깃털을 뒤주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자물통을 꼭 잠그고 열쇠는 따로 마루 밑에 두었다. 할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이 풍진세상을 또 한탄하며 노래를 했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명주는 받지 않았다. 고니들이 떼 지어 산 너머로 날아갔다. 우아하고 부드러운 날갯짓이었다. 명주는 고니들이 사라진 쪽을 하염없이 쳐다보았다.

1) (가)에서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명주'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꽤 괜찮은 경험이었고,
더는 꼬맹이라고 놀림도
받지 않았고, 유명해졌음.



몸속에 담아 두었던 말
을 밖으로 다 내보내서 몸
도 마음도 가뻐해졌음.

2) (나)에서 '명주'는 깃털을 뒤주에 다시 넣고, 자물통을 꼭 잠그고 열쇠는 따로 마루 밑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명주'의 결정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

⇨





정답과 해설

3쪽	<p>1) (예시답안) 7월은 31일까지 있는데, 32일의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p> <p>2) (예시답안) 비가 오는데, 한 남자아이가 팔다리를 우그려 몸을 작게 웅츠리며 얼굴을 파묻고 있다. 그 옆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작은 아이가 모자를 두 손으로 잡고 바라보고 있다.</p> <p>3) ① 외로움이라는 작은 조각들을 마음에 품은 아이들 ②·준재 :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동급생 진호의 주막집에 시달림 / 도깨비감투 ·명주 : 집에서 학교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함 / 선녀의 날개옷</p>
4쪽	<p>1) 주제넘다 : ③, 삭다 : ④, 채근하다 : ②, 성성하다 : ①</p> <p>2) ㉠ : ㉡, ㉢ : ㉣, ㉤ : ㉥</p>
5쪽	<p>1) ① 일식, ② 징조, ③ 주전부리, ④ 건너뚝, ⑤ 바코드</p> <p>2) ㉠ : 천만다행, ㉢ : 풍진세상</p>
6쪽	<p>1) 몽이 : 기준재, 학교, 엄마, 몽이 / 몽이 부자 : 창신동, 몽니, 부자</p> <p>2) 7월 32일이 있는 잘못된 달력</p> <p>3) (예시답안) 몽이 아버지에게 재수 없는(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p>
7쪽	<p>1) (가) : 도깨비감투, 손 / (나) : 머리, 몸통, 기절 / (다) : 가슴, 손끝</p> <p>2) 꼬마가 트나무 속에서 500년을 살았는데, 가지고 있던 도깨비감투가 500년이나 되니 낡고 해져 버려서</p>
8쪽	<p>1) 몽이를 날마다 두드려 패는 아버지를 놀라게 해 주려고</p> <p>2) (예시답안) (1) 아버지는 자신을 날마다 때리고 엄마는 자신을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몽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고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2)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환경에서 고통 받고 좌절하는 몽이의 입장에 공감이 간다. / 단 한 사람이라도 몽이를 도와 줄 이가 있었다면 결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p>
9쪽	<p>1)·뒤주 : 자물통, 누르께한 / 명주의 반응 : 품, 가슴 ·방 : 갈매기, 하늘을 나는 사람 / 명주의 반응 : 혼한, 입으라고</p> <p>2) 고개를 살짝 숙이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속도 조절이 안 됐다.</p>
10쪽	<p>1) 날개옷, 겁, 심장 / 날개옷, 자신감, 걱정</p> <p>2) 날개옷을 아주 못 벗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온전한 사람으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p>
11쪽	<p>1) 어느 순간 점점 불편해졌음.</p> <p>2) (예시답안) 다시는 날개옷을 입지 않기로 한 명주의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날개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본 것은 꽤 귀찮은 경험이었지만, 계속해서 날개옷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 회피 밖에는 안 되기 때문이다. 명주 스스로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를 응원한다.</p>

웅진 주니어

값 9,500원



ISBN 978-89-01-21958-5
ISBN 978-89-01-03863-6(세트)



KC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함을 증명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